

피겨 차준환, 시즌 첫 그랑프리 銅

스케이팅 캐나다 인터내셔널 男 싱글 프리스케이팅서 기술점수 등 합해 총 171.93점... "나름대로 잘 마무리"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고려대)이 2024~2025시즌 첫 그랑프리 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차준환은 28일(한국시각)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열린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 '스케이팅 캐나다 인터내셔널'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87.98점, 예술점수(PCS) 83.95점을 합해 171.93점을 받았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88.38점으로 4위였던 차준환은 총점 260.31점을 획득,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리며 3위를 차지했다.

301.82점을 받은 일리아 말리닌(미국)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일본의 사토 슌이 260.31점으로 은메달을 땀다.

차준환은 사토에 불과 0.85점 차로 밀려 동메달에 만족했다.

'미치광이를 위한 발라드(Balada para un loco)'에 맞춰 연기를 시작한 차준환은 첫 과제인 쿼드러플 살코를 깔끔

하게 뛰었다. 기본점수 9.70점에 수행점수(GOE)를 3.05점이나 받았다.

이어 쿼드러플 토투프도 실수없이 소화해 기본점수 9.50점, GOE 2.31점을 얻었다.

4회전 점프를 모두 완벽하게 댄 차준환은 이후 아쉬움을 남겼다.

트리플 리츠-트리플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시도한 차준환은 첫 점프에서 착지가 흔들려 연결 점프를 뛰지 못했다. 트리플 리츠 단독 점프가 됐고, 쿼드러플(점프 회전수가 90도 수준에서 모자라는 경우) 판정까지 나왔다.

차준환은 흔들리지 않았다. 세 바퀴 반을 도는 트리플 악셀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스텝 시퀀스를 최고 난도인 레벨4로 연기하며 호흡을 가다듬은 차준환은 10%의 가산점이 붙는 연기 후반부에 트리플 플립-싱글 오일러-트리플 살코를 무리없이 뛰었다. 기본점 11.11점에 GOE 0.76점을 따냈다.

하지만 이어진 트리플 악셀-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에서 언더로테이션이



차준환이 28일(한국시각)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열린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점프 회전수가 90도 이상 180도 이하로 모자라는 경우) 판정이나와 아쉬움을 삼켰다.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피ンを 레벨4로 연기한 차준환은 트리플 플립으로 모든 점프 과제를 마쳤다.

차준환은 코레오 시퀀스와 플라잉 카펠 스피ن(레벨4), 플라잉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피ن(레벨4)으로 연기를 마무리했다.

대회를 마친 뒤 그는 대한빙상경기연맹을 통해 "올 시즌 첫 그랑프리 대회를 나름대로 잘 마무리한 것 같다"며 "이번 대회에서 있었던 실수를 잘 보완해 다음 대회에서 좋은 경기를 펼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시스

'장애물 뛰어넘고... 마장마술 선보이고...'

장수군, 2024 추계 전국 승마대회 성료... 총 15명 선발

장수군은 2024 추계 전국 승마대회가 21일부터 27일까지 대회 기간 중 5일간 천천면 장수국제승마장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대한승마협회(대표 박서영)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총 16개의 종목(장애물 9종, 마장마술 7종)으로 이루어졌으며, 참가 선수 200여명, 참가 마필 250여 필로, 선수들은 기량을 한껏 뽐내며 어느 때보다도 열띤 경쟁을 펼쳤다.

또한, 이번 전국 승마대회에서는 제52회 한일승마대회 선발전을 포함해 치러져 장애물 110Class(6명), 장애물 120Class(6명), 마장마술 S-1Class(3명) 총 3개 종목에서 15명의 선수를 선발했다.

선발전 선수들은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본 시즈오카



에서 개최 예정인 한일승마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졌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은 2018년 '말산업특구'로 지정됐으며 국제규격의 실내 승마장, 승마체력장, 승마레저타운 등 말산업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연간 15회 이상 승마대회를 개최하는 등 생활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한국 쇼트트랙 女대표팀 ISU 월드컵투어 '승전보'

김길리, 1차 대회 여자 1500m서 우승... 최민정은 3위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차세대 간판 김길리(성남시청)가 2024~2025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투어 1차 대회 여자 1500m에서 우승했다.

김길리는 28일(한국시각)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모리스 리처드 아레나에서 펼쳐진 대회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24초396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은메달인 벨기에의 하너 데스멧(2분24초438)을 마지막 바퀴에서 제쳤다.

김길리는 최민정, 김건우(스포츠포토), 김태성(서울시청)과 함께 나선 혼성 2000m 계주에선 은메달을 추가했다.

함께 출전한 최민정(성남시청)은 동메달(2분24초510)을 땀다.

여자 1500m에 함께 출전한 최민정(성남시청)은 동메달(2분24초510)을 수확했다.

휴식 후 한 시즌 만에 쇼트트랙 대표팀에 복귀해 이번 대회에 나선 최민정은 은메달 2개(혼성 2000m 계주, 여자 3000m 계주), 동메달 1개(여자 1500m)를 목에 걸었다.

최민정은 소속사 올댓스포츠를 통해



쇼트트랙 월드컵투어 1차대회에서 금메달인 김길리와 동메달을 목에 건 최민정(오른쪽).

"오랜만에 국가대표로 복귀해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여러 개의 메달을 수확해 관람은 복귀전이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자 1000m와 여자 500m에는 단 한 명도 결승에 오르지 못해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월드투어 1차 대회를 마친 한국 대표팀은 내달 1~4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2차 대회에 출전한다.

애초 2차 대회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경기장 안전펜스 규격 문제로 개최지가 변경됐다. /뉴시스

전북현대 B팀

K4리그 종합우승

전주시민축구단과 최종전서

2:1 역전승 거둬... K3리그 승격

안대현 감독이 이끄는 전북현대B팀이 대한축구협회가 공식 주최하는 2024년 K4리그 대장전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8일 원주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전북현대 B팀과 전주시민축구단의 K4리그 최종전에서 전북현대 B는 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2:1 역전승을 거둬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전북현대 B는 지난 2022년 B팀을 창단한 후 3년 만에 K4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K3리그 승격이라는 결과를 맺었다.

이로써 2025년에는 K3리그는 더욱 치열한 경쟁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기 종료 후 열린 우승 기념 시상



지난 28일 원주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전주시민축구단과의 K4리그 최종전에서 2:1로 승리한 전북현대B팀이 우승 축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원주군청 제공)

식에는 유희태 원주군수, 하석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과 이도현 전북현대 FC 단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우승의 기쁨을 함께했다.

유희태 원주군수는 "K4리그에서 우

승한 전북현대 B팀 선수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내년에는 전북현대 B팀이 K3리그에 참가하는 만큼 그에 맞는 시설 개보수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군과 전북현대 B는 지난해 원주공설운동장을 전북현대 B팀의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업무협약을 맺어 경기를 진행해 왔다.

/원주=염재복 기자

